KUM DANCE COMPANY

묵간 열여덟 번째, 歌舞(가무)

최미정 안무 「미인(me.in)」

박진영 안무 「하(賀)」mony」

2016년 5월 14일, KUM Dance Company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소극장 기획공연 묵간(墨間)을 개최했다. 97년 처음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 이래, KUM Dance Company가 해마다 야심차게 기획하는 '묵간'은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이한다.

금년 묵간은 '가무(歌舞)'라는 주제로 최미정, 임해진, 박진영 세 여성 안무가들로 구성되어 각자의 색이 묻어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최미정 안무 「미인(me.in)」에서의 여성성은 그 의미가 더 부각되어보였다. 화려함을 동경하던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내면보다 외면에 더 치중하며 가꿔온 날들, 하지만 '미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보다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춤으로 풀어낸다. 'me.in' 즉, 외면의 미를 갖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가 드러날 때 비로소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준다.

탈과 바가지 등 전통적 오브제를 사용하여 내면을 감추려는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탈을 쓴 여인에게서 탈을 벗기고 박을 깨부수며 격정적으로 나아간다.

보이기 싫었던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게 된 여인, 흩어진 박의 조각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다시 자신의 얼굴에 갖다대보기도 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임해진 안무 「푸른 벼랑」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움직임은 휘청이기도 하고 간절해 보이기도 한다. 삶의 치열함과 위태로움을 표상하며 흔들리는 이들의 몸짓, 하지만 단순히 위태로워하는 이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함은 아니었다. 벼랑이 푸르다. 푸른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 위태로운 현실에서의 도피를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보여준다. 벼랑 끝에 서있지만 푸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드러낸다. 보통의 여리여리한 여성의 모습보다는 솔로와 듀엣, 군무를 이루어 가며 전환되는 감성표현과 더불어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였다.

박진영 안무 「하(賀)」mony」는 라이브 연주단과 함께 피아노, 장구, 드럼, 베이스, 태평소 등 전통적 요소와 현대악기가 어우러진 타악 리듬을 강한 비트로 소화했다. 음악과 춤의 협업을 통해 리드미컬하면서도 무용수들의 조화는 더욱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후반부에서는 남성 무용수들이 갖고 나온 붉은 밧줄을 여기저기 던지고 그 사이를 넘나들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친다. 서로 밧줄을 통해 대립되기도 하고 힘껏 끈을 안았다가 놓기도 하며 강렬함과 더불어 처절함을 보여준다. 생음악이 주는 청각적 자극에 점점 더 격해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더해져 하모니를 구하는 긍정의 메시지로 결말을 풀어낸다.

이처럼 '묵간'은 안무가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한국창작무용계에 새로운 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예술적 실험과 새로움에 도전하는 의미로서 한국무용가 혹은 무용학도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은비 기자

임해진 안무 「푸른 벼랑」

2016 영국 Kala Sangam Arts Centre 초청공연 'Delight of Korea'

'Delight of Korea'는 KUM Dance Company의 '우리춤 한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와 영국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공연은 영국 웨스트 요크셔의 브래드포드 시티 중심에 위치한 Kala Sangam Arts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Kala Sangam Arts Centre의 아시아 아티스트 특별 초청공연으로 기획되어 현지에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유럽 문화교류의 통로를 마련하여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한류열풍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되었다.

11월의 끝자락, 단원들은 긴 비행시간 끝에 브래드포드 시티에 무사히 도착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트센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강술래 워크샵을 진행했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춤을 처음 접해본 아이들이 큰 흥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본 공연을 당일 26일, Kala Sangam Arts Centre 내 200석 규모의 극장에는 대다수의 브래 드포드 시민들과 영국에서 체류 중인 남아시아계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1부 부채춤, 시나위, 입춤, 한량무, 승무, 소고춤으로 구성된 전통춤 프로그램과, 2부 네 개의 한국 창작춤 작품을 차례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공연 직후에는 한국춤의 역사 국악기, 전통의상 등에 대한 인터뷰 시간을 진행하였다.

영국공연의 값진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한 발 성장하며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 이다.

-박진영, 공주희 기자

김소연 담묵

박진영 하(賀)mony-緣

2016 Kum Dance Company Performance M극장 개관10주년 기념 공연

M극장 개관10주년 시리즈 신진안무가 NEXT 중 김소연 안무작 「담묵」이 2016년 10월1-2일 공연되었다.

담묵의 의미는 동양화에서 사용하는 묽은 먹물이란 뜻인데, 여기에 한자를 조금 바꿔 말씀 담자에 묵묵할 묵자를 써 침묵과 말의 의미를 담았다. 무대 한편에서 천에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장면으로 묽은 먹물처럼 침묵에서 말 한마디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M극장 개관10주년 시리즈 이슈와 포커스 중 박진영 안무작 「하(賀)mony-緣」이 2016년 10월 15-16일 양 일간 공연되었다.

「하(賀)mony-緣」은 묵간 열여덟 번째에서 초연된 작품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 사람과의 어우러짐, 혹은 충돌에서 오는 울림을 하모니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모든 어우러짐이 인연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는 작품의 주제를 움직임에 투영한 작품이다.

-전미라 기자